



## 분야

청소년 > 청소년 소설

## 키워드

#가족 #장애 #우정 #다양성 #자긍심 #차이와 차별

## 책 소개



《오늘도 우당탕탕 못 말리는 보통 가족》은 2021 함부르크문학상 아동청소년 부문 수상작으로 가족, 장애, 우정, 다양성 등을 키워드로 십 대 소년의 고민과 깨달음을 위트 넘치는 문체로 풀어낸 성장소설이다.

휠체어 경주 대회에 참가할 만큼 자신만만한 아빠, 눈에 띄는 거구에 엉터리 발명으로 소동을 일으키는 엄마, 반짝이부터 깃털까지 늘 공작새처럼 화려한 삼촌과 살아가는 카를리. 개성 넘치는 가족이 지긋지긋한 이 사춘기 소년의 소원은 제발 좀 평범해지는 것!

어느 날 카를리는 댄스파티에서 매력적인 소녀 요나를 만나 빠져드는데... 리듬감 최고인 요나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알고 당황한다. 게다가 남다른 비밀을 숨겨 왔던 단짝 친구 로빈의 진실이 드러나자, 카를리는 혼란에 빠진다.

우당탕탕 바람 잘 날 없는 날들 속에서  
카를리는 '보통'이 될 수 있을까?

## 책 소개

- 1차시 카를리 가족들을 만나 보자
- 2차시 가족의 의미
- 3차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맺기
- 4차시 무지개 공동체 속의 우리
- 5차시 나의 '비정상'을 찾아서
- 6차시 혐오 표현에 대항하자
- 7차시 자긍심을 가져요



## 내용 확인하기

1. 작품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찾고 그 이유와 함께 적어 봅시다.

인상 깊었던 구절	
그 이유	

2. 작품 속 등장인물의 특징 및 성격을 정리해 봅시다.

카를리	
아빠	
엄마	
고모	
로빈	
요나	

3. 이 작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 두 개를 책 속에서 찾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모둠원과 이야기해 봅시다.

키워드	고른 이유



## 내용 확인하기

1. 카를리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 생각 넓히기

1.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주고 싶나요?

## 활동하기

가족 구성원 인터뷰하기

1. 인터뷰 대상을 한 명 정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3~5개 정해 봅시다.

(예)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2	
3	
4	
5	

2.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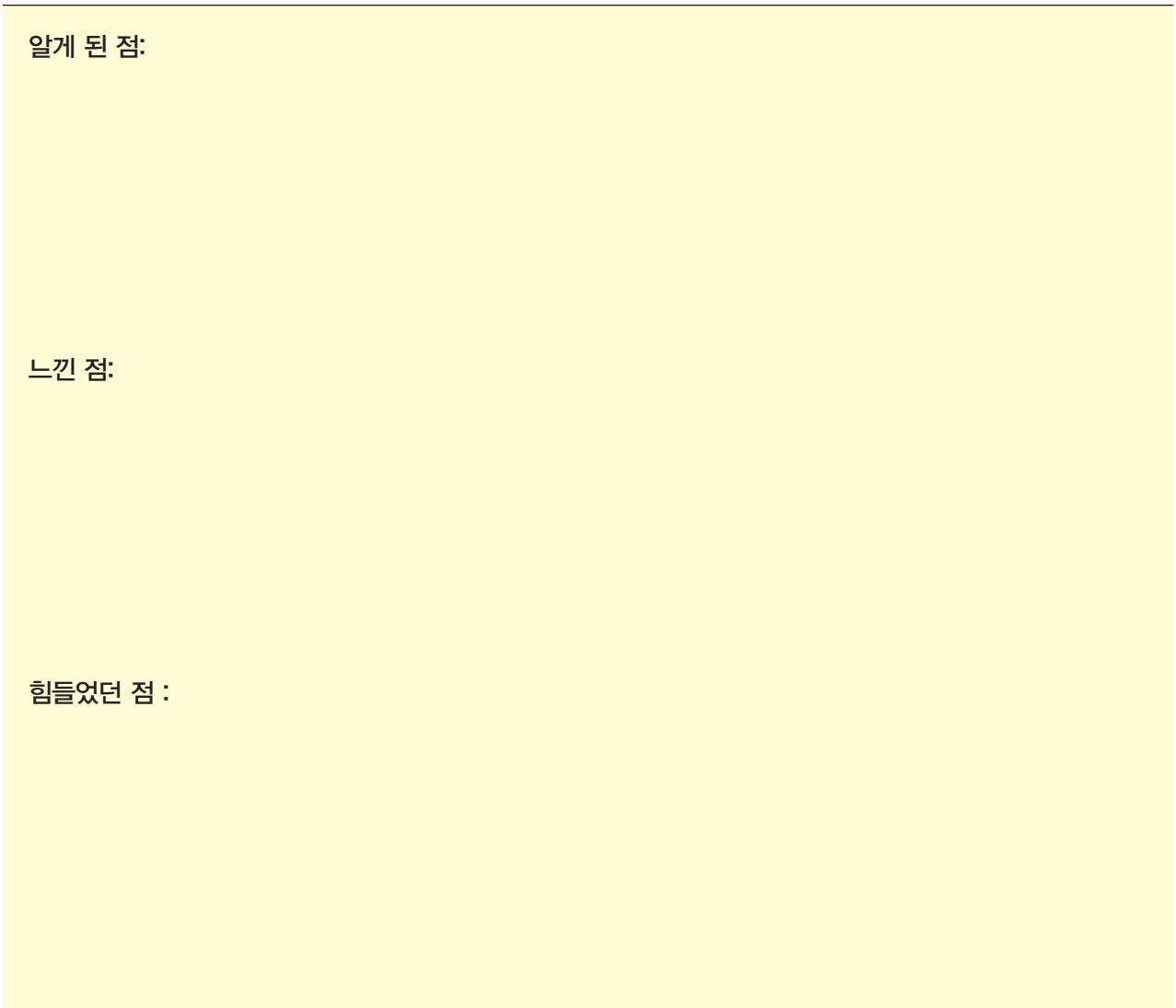


3. 인터뷰를 하며 새롭게 알게 된 것, 느낀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알게 된 점:

느낀 점:

힘들었던 점 :



## 생각 넓히기

1. 달리기에 참가할 계획이라는 아빠의 말에 카를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아빠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 아빠는 달릴 수 없는데요?”(20쪽)

“뭐라고요? 아빠, 제정신이에요? 1,500미터라면 내가 겨우 해낼 만한…….”(23쪽)

“아빠는 걷지 못하고, 달리기는 더더욱 못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일을 벌이나요?”(62쪽)

2. 요나를 만나러 베토벤 학교에 간 카를리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요나를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 모두가 수어를 할 줄 안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뭔가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나’인 듯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한다면 언어가 무슨 소용이 있지? 나는 이런 종류의 말하기에서는 소외되어 있구나. (135쪽)

## 활동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카를리의 아빠가, 요나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토의해 봅시다.

나는 '장애 체험' 활동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몸들은 다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몸에 적응하며 존재하고 있다. 매 순간이 불행하고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장애인이 몇 분간 장애를 체험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인프라의 부족, 사회적 차별을 눈치채기는 쉽지 않다. 체험하는 이들이 주로 가져가는 감상은 '정말 불편했어요'인데, 자신의 신체와 다른 신체를 갑자기 경험하면 당연히 불편이 따라온다. 그들이 느껴야 할 것은 장애로 인해 촉발되는 불편함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내는 '장벽'이다. 정말 장애 체험을 하고 싶다면 '안전한 공간'에서 잠깐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휠체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편의점에 가서 원하는 제품을 사보고, 휠체어를 타고 충무로역에서 환승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안전하지 않은' 일상의 공간에서 장애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김지우,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름니다》, 휴머니스트

## 생각 넓히기

1. 카를리의 학급 파티에 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홀거’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마리아 고모의 기분이 어땠을지 추측해 봅시다. (109쪽)

2. 로빈의 일로 도움을 요청하러 온 카를리와 요나에게 마리아 고모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밑줄 친 부분에 담긴 의미를 추측해 봅시다.

“스스로가 겉으로 보여 주는 모습과 내면이 다르다고 느끼면 그건 지옥이야. 어떤 제약에 굴복해야 하거나, 언제나 만사 오케이인 척하거나, 자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인 척해야 한다면 말이지. 내 말을 믿어. 내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믿으렴.” (152쪽)

## 활동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다른 이의 인권과 대립할까?**

2020년 1월 뉴스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 A씨가 모 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조직적인 입학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진짜 여성이 아니므로 여성들만 다니는 여대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

##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제일 처음 본 의사 혹은 조산사가 나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의사 혹은 조산사가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본인의 생각대로 성별을 표시합니다. (...) 우리는 흔히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을 국가가 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지정 성별'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정하는 성별이 지정 성별이라면 내 안에서 스스로 느끼는 성별이 있습니다. 이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라고 해요. 성별 정체성이란 자기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을 말합니다. (...) 성별 정체성에 남성, 여성 두 개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로는 충분히 다 표현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논바이너리(Non-binary)' 혹은 '젠더 퀴어(Genderqueer)',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등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지정한 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을 '시스젠더(cisgender)'라고 합니다. 또 우연히 일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경우를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하지요. (...)

## 생식기나 염색체로 구별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

어떤 사람이 진짜 여성인지, 진짜 남성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흔히 염색체가 XX이고 자궁과 나팔관, 난소 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생물학적 여성이고, 진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인간은 여성과 남성으로 정확하게 그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없습니다.

(...) 인간의 염색체는 XX, XY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X 염색체만 세 개를 가진 XXX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XXY라고 X 염색체 두 개와 Y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XYY라고 Y 염색체를 두 개 갖거나 세 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염색체 조합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염색체가 XY라고 해도 자궁과 난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음경과 정소를 가졌지만 염색체는 XX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궁과 음경을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음경은 없지만 정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출처: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자대학에 다닐 수 없나요?>, <잠깐 이제 다 인권 문제라고요?>, 곰곰

## 생각 넓히기

1. 다음 장면을 다시 읽고, 카를리가 생각하는 '평범', '정상'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지 정의해 봅시다.

평범한 게 뭐야?

평범한 게 뭔지는 사실 명확했다. 하지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려니 어딘지 모르게 바보처럼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과 같으면 평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데?

“흐음, 눈에 별로 띄지 않잖아.”

나는 눈에 띄어?

“당연하지. 너는 듣지 못하잖아.”

너는 뭐든 할 줄 알아? (89-90쪽)

나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지만 내면에는 강력한 태풍이 몰아쳤다. 내 암벽이요 항구이며, 완전히 정신 나간 내 삶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로빈이…… 돌았다고? 정신병자라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지? 뭐가 남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정상 또는 제정신이 아닌, 올바른 또는 틀린, 선한 또는 악한…… 이런 게 정말 존재하기나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이 그저 망상이며 발명품에 불과할까? 우리는 이런 것을 지닌 채 목발을 짚듯 평생 절뚝이며 살아가야 하나? (149-150쪽)

'평범'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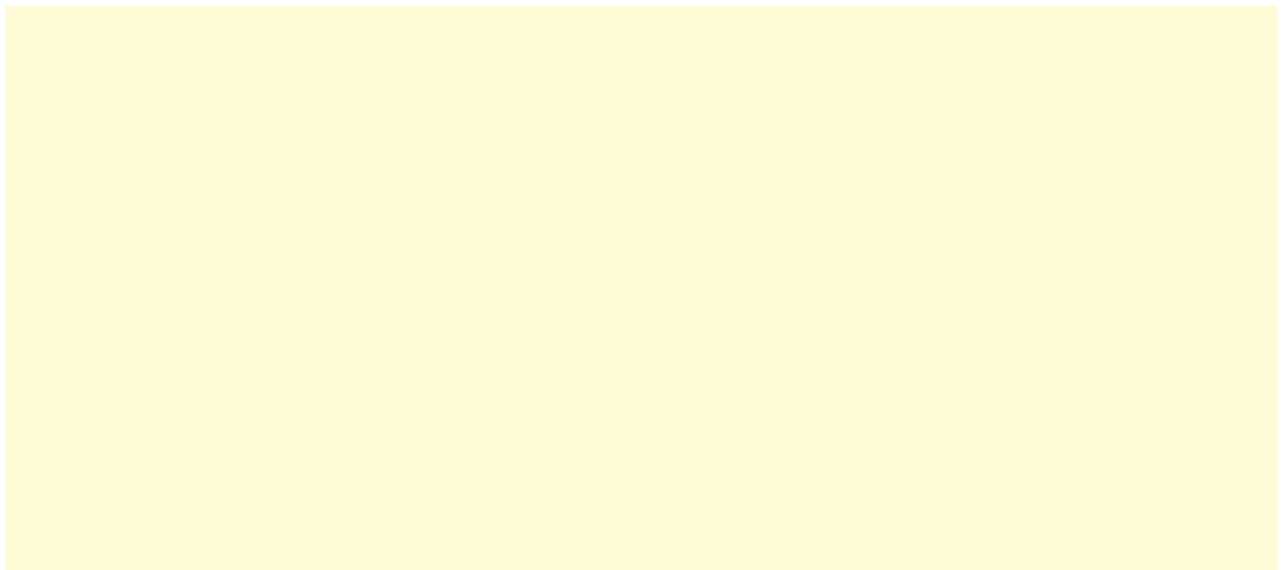
'정상'이란

## 활동하기

1. 작품 속 카를리는 '눈에 띄지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장애도 없는 사람들'을 정상이라고 여깁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정상/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모둠원들과 함께 적어 봅시다.

정상	비정상

2. 위 표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고, 느낀 점을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생각 넓히기

1. 다음 영상을 보고 혐오 표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적어 봅시다.



출처: 혐오대항 교육영상 1편 “혐오 뽀개기”, 국제엠네스티 유튜브 채널

2. 작품 속에서 혐오 표현을 찾고, 그것이 혐오 표현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 활동하기

1. 오늘 교실 속에서 오고 간 말들 중 혐오 표현이 있는지 떠올려 봅시다. 또는 요즘 사용했던 말, 들었던 말 중에 혐오 표현이 있는지 찾고, 그것이 왜 혐오 표현인지 모둠원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 생각 넓히기

1. 다음 장면을 읽고 ‘자긍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야.”

엄마는 화가 나서 씩씩거렸다.

“어쩌면 네 마음에 드는 모습과는 다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상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

“하지만 로빈도 어쩌면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뿐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모습 말이예요.”

겨우 이렇게 말했다.

홀거 삼촌이 머리를 긁적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하지만 다름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야. 다른 사람과 완벽하게 다르면서도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지. 자기에게 중요한 게 도대체 뭔지 알아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그 사람 자신이야. 그 사람은 이런 스스로를 다루는 법을 배워 가야 해.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낫겠다.” (153-154쪽)

## 활동하기

1.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 중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 남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 주기 망설여지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2. 1번 에서 떠올린 것들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3.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기억하면 좋을 문장을 책 속에서 골라 옮겨 적어 봅시다.

